



## 미 증시, 소비자물가 급등세 진정에도 약세

### 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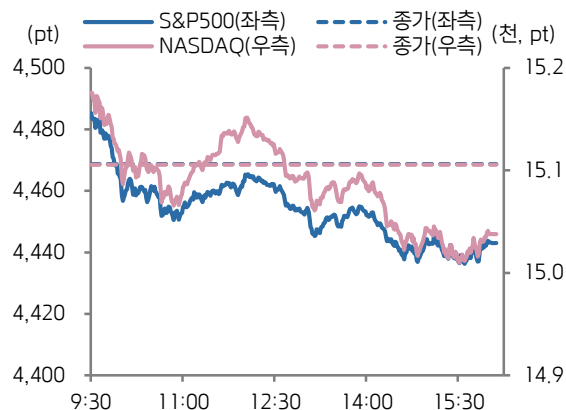
14 일 (화) 미국 증시는 장 초반 8 월 소비자물가 지표 결과를 소화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, 이후 애플의 아이폰 13 실망감, 경기 둔화 우려 재확산, 9 월 FOMC 경계심리 지속 등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 마감(S&P500 - 0.57%, 나스닥 -0.45%, 다우 -0.84%, 러셀 2000 -1.37%)

개장 전 발표된 8 월 미국 CPI 는 전년대비 +5.3%로 예상치에 부합, 전월(+5.4%)보단 소폭 하락한 수준을 기록. 근원 CPI 는 +4.0%로 예상치(+4.2%)와 전월(+4.3%)를 모두 소폭 하회.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다음주 FOMC 를 앞두고 인플레이 압력이 둔화되었다는 안도감으로 S&P500 은 장 초반 0.3% 상승 출발.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을 중심으로 연준 테이퍼링 타임라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목을 받으면서 테이퍼링 부담은 지속됨.

전일 뉴욕 3 대 지수 중 나스닥만 하락 마감했던 가운데 이날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나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음. 연일 전업종 하락했고 그중 에너지, 금융, 산업재 소재 등 업종들의 낙폭이 가장 컸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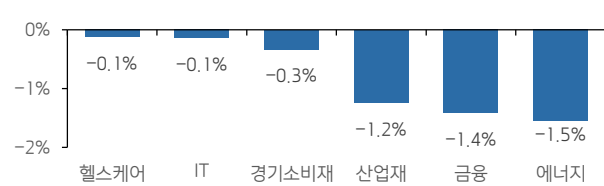
이날 장중 하락 전환 요인은 애플 이벤트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. 최근 애플게임즈 소송 이슈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주가에 추가적인 매도세를 야기시킴. 애플의 아이폰 13 의 주목할 만한 변화들은 1)향상된 배터리 용량, 2)더 큰 메모리 용량, 4)새로운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, 5)더 작아진 상단 노치. 13 프로와 13 프로 맥스 모델은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탑재와 향상된 120Hz 주사율 디스플레이 탑재.

### 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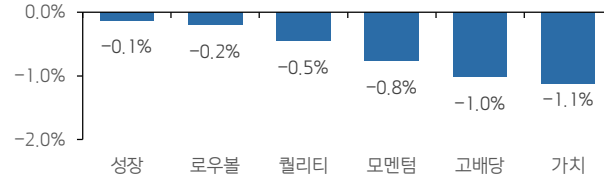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특징주

오라클(-2.8%): 실적 부진에 하락. 매출 97.3 억 달러 vs 예상 97.7 억 달러. 매출 성장률 전분기 8%에서 4%로 둔화. 다만 다음 분기 가이드는 EPS 예상 1.08 달러보다 높은 EPS 레인지 1.09~1.13 달러를 제시.

아메리칸 익스프레스(-1.2%): 비즈니스 여행 수요가 의미 있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발표에 하락.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(-1.4%), 델타 에어라인(-1.8%), 유나이티드(-2.2%) 등 항공주들과 더불어 보잉(-1.4%) 모두 하락.

컴캐스트(-7.3%): 당사는 케이블 비즈니스 사업 성장이 8월에 둔화되었다고 언급.

PNC(-3.1%): 미국 국채 2-10년 스프레드 축소로 순이자마진이 줄었다고 언급. JP 모건(-1.8%),뱅크오브아메리카(-2.7%), 씨티그룹(-2.5%) 등 다른 은행주들도 하락.

애플(-1.0%): 장중 아이폰 13 이벤트 진행. 기존 라인들인 13, 13 미니, 13 프로, 13 프로 맥스를 공개. 이번 플래그십의 하이라이트는 카메라와 프로세서칩 기술 향상.

마이크로소프트(+0.9%):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하향조정(331→305 달러)에 불구하고 상승. 목표가 하향은 해당 성장률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높았다는 점을 지적.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로 유지.

## 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4,443.05	-0.57%	USD/KRW	1,170.74	-0.44%
NASDAQ	15,037.76	-0.45%	달러 지수	92.65	-0.03%
다우	34,577.57	-0.84%	EUR/USD	1.18	+0.03%
VIX	19.46	+0.46%	USD/CNH	6.44	+0.02%
러셀 2000	2,209.99	-1.37%	USD/JPY	109.68	-0.01%
필라. 반도체	3,449.39	-0.01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4,285.46	-1.13%	국고채 3년	1.540	+1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2.062	+1.7bp
Eurostoxx50	4,191.67	+0.05%	미국 국채 2년	0.207	-0.6bp
MSCI 전세계 지수	737.62	+0.05%	미국 국채 10년	1.284	-4.2bp
MSCI DM 지수	3,126.10	+0.13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301.54	-0.57%	WTI	70.46	+0.01%
MSCI 한국 ETF	84.36	+0.14%	금	1807.1	+0.71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주) (\*)는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14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0.84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31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172.4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아이폰 13 공개 이후 애플 주가 부진에 따른 국내 관련 밸류체인 주가 변동성 확대 여부 2. 장중 발표되는 중국의 8 월 산업생산, 소매판매 결과 3.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2차전지 등 친환경 테마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여부
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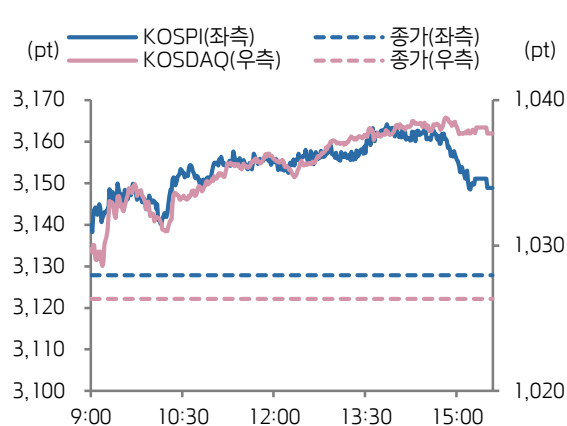
8 월 소비자물가(5.3%YoY, 전월 5.4%, 예상 5.3%)의 급등세가 진정 됐음에도, 미국 증시가 전장 후약의 장세를 보인 배경은 신규 상승 모멘텀 부재 속 경기 둔화 우려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. 물론 한동안 미국의 소비자물가 급등세를 견인했던 중고차가격(41.7%→31.9%YoY, 0.2%→-1.5%MoM)은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, 항공, 호텔, 운송 등 여타 항목의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점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개선세가 위축됐다는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.

더 나아가, 글로벌 물류, 항만 등 공급 차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, 추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는 점이 8 월 소비자물가를 주식시장에서 중립 이상의 재료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. 금번 소비자물가 결과로 9 월 FOMC 에서의 테이퍼링 공식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은 안도 요인. 그러나 성명서 및 점도표 상 연준의 경기 판단과 금리 전망치의 변화 여지가 있으므로, 9 월 FOMC 에 대한 중요도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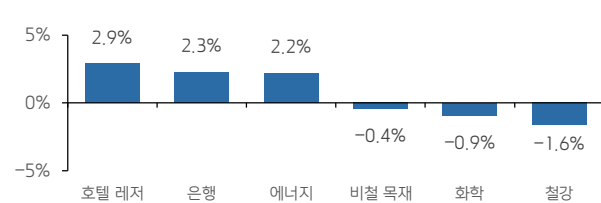
이상의 요인을 감안 시, 전거래일 강세를 보였던 한국 증시도 금일에는 약세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. 미국 8 월 소비자물가 급등세 진정에도, 델타 변이 발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15 일, 16 일 미국의 산업생산, 소매판매 등 실물 경제 지표 결과를 확인하려는 대기 심리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. 또한 전거래일 아이폰 13 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부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, 국내 증시에서도 아이폰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도 유의할 필요.

금일 장중에 발표되는 중국의 산업생산(5.8%YoY, 전월 6.4%), 소매판매(7.0%YoY, 전월 8.5%) 지표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. 다만, 8 월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부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, 8 월 중국 경기 모멘텀 부진은 일정부분 선반영됐으며 중국 정부의 부양의지도 높아졌음을 감안할 필요. 따라서, 중국의 8 월 실물 경제 지표가 큰 폭의 쇼크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 이들 지표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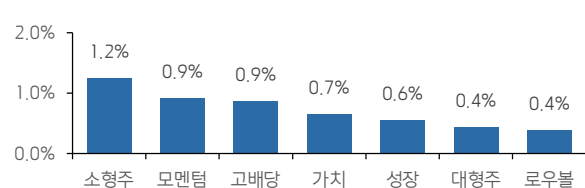
## KOSPI & KOSDAQ 일종 차트



##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



## 스타일별 주가 등락을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### 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# 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